

## 道德性 歸因發達 研究의 假說的 接近

金 東 基  
江南社會福祉大

도덕성 귀인발달의 실험적 연구를 목표로 한 기본적 가설설정을 위한 고찰로서, Piaget, Kohlberg 이론과 Heider, Kelley 이론을 중심으로 한 여러 연구 결과를 검토하고 양대측면의 개념통합을 시도하였다. 구체적 방법에서는 인과스키마 고찰을 필수로 하여 아동의 도덕성 판단에 대한 귀인적 분석을 하였고, 귀인발달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도덕성·이타성 목록과 실험적 자극(스토리) 제작과 질문 방법을 모색하였다.

인간행동에 대한 추론의 연구는 최근 사회심리학에서 가장 활발한 이론적 접근체계로서 귀인이론(attribution theory)이라고 불리워지고 있다. 이 귀인이론은 접근방법이 전통적인 심리학적 방법과는 차이가 있으면서도 여러 심리학분야에 점차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귀인은 외현행동에 의하여 타인의 행동이나 자신의 내면상태를 관찰자가 추론하는 것을 의미한다. 인간의 모든 행동에 대한 원인추론에서 귀인문제가 생기며, 어떤 행동이든지 많은 원인 가운데서 가능한 어느 하나를 그 행동에 귀인시켜야 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러한 귀인에 관한 이론은 Heider(1958)에 의해서 시작되었는데, 대부분의 사회심리학에서의 지각인지에 대한 전통적 이론에서와 같이 그는 모든 인간에게는 두가지 강력한 동기가 있다는 것을 가정하였다. 즉 세상에 대해 일관성이 있는 이해를 하려는 욕구와 환경을 통제 하려는 욕구로서, 이들 각각의 동기를 충족시키는데에 필수적인 것중의 하나는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려고 하는가를 예측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인간의 원인적 사교에 대한 관심은 원래 Piaget(1926)의 아동연구에서부터

발단되었으며, 그후 1969년까지 이에 관한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다. 이로부터 약 10년간 연구된 아동인지에 관한 원인적 설명에서 보면 그 내용이나 특성(예컨대, *phenomenalistic causality, finalism, artificialism, animism*)에 주로 연구의 초점을 맞추었다. 이와 관련된 개념설명에서 Piaget는 먼저현상론적 인과관계론에 대하여는 전조작기의 유아가 정확한 내재적인 인과관계를 말할 수 없으나, 사물간의 관계 혹은 어떤 현상간의 관계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원인과 그 원인에 의한 결과를 화합하려고 하는 초보적인 인과스키마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들은 1970년대 초반부터 아동의 연령에 따라 원인적 추론이 다르다는 발달적 측면을 다루는 방향으로 전환하였다. 발달적 측면의 첫번째 연구는 Shaw와 Sulzer(1964)의 책임성에 관한 광범한 고찰이었고, Baldwin과 Baldwin(1970)의 발달에 대한 귀인적 접근에 이어, Weiner와 Kun(1973) 등과 같은 학자들은 원인적 귀인과 아동의 성취행동을 결부시키려는 최소의 접근을 시도한 바가 있다.

귀인발달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연구가 합리적이고, 사회적 인지이론이 출현되었다는 점이다. 전통적으로 사회적 발달은 정신분석적 이론과 사회적 학습이론내에서 거의 배타적으로 연구되어 왔으며, 인지적 지향성도 강조되지 않았다. 그러나 한편 이들 인지발달연구자들이 Piaget의 영향을 받은 것은 흥미 있는 일이고, 이와 관련하여 Shantz(1975) 같은 학자는 성인의 대인관계 이해에 관련한 연구와 이론이 발달연구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하였지만, 그러나 Flavell(1971)은 초기의 발달이해는 대인관계에서 추론에 관한 발달심리학적 가치를 강조하였다. 이러한 개념적 차이를 줄이기 위한 연구들이 계속되었다.

본 연구는 인간행동에 대한 아동의 원인적 귀인발달을 다루어 보고자 함이 그 초점이다. 발달적 측면에서의 귀인이론은 인간에 대한 아동의 표현과 사상(事象)에 대한 설명에 관계된 대인지각이라고 인용되어 왔으나 인과의 발달적 연구는 물리적 인과(*physical cause*)의 전통적인 한계를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예컨대, 보조개념과 같은 물리적 추론개념을 다루었을 뿐 대인지각 내지는 심리적 지각의 정도는 다루지 않았다. 그런 한편 Leahy(1976)와 같은 학자들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행동적 특성의 질적 묘사를 Kelley의 귀인규범을 사용하려는 흔적이 엿보이기도 하였다. 이러한 타인행동의 원인추정 즉 귀인과정에 대한 여러 이론과 실증적 연구들이 활발히 이루어졌고, Kelley(1972)가 인과스키마 이론을 제안한 이래로 최근에는 이들 스키마 사용에 대한 연구가 아동을 대상으로 실증적으로 이루어지기도 하였다(예, Smith, 1975; Shultz, Butkowsky, Pearce and Shanfield, 1975).

그러나 Stotland와 Canon(1972) 등이 연구한 귀인의 스키마 설명을 보면 스키마 형성과정에 대한 이론은 정도의 차이질 질적인 차이(단계)는 다루지 않았고, 정도가 복잡해지는 경우는 절감과 같은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다(Piaget와 같은 스키마 발달의 개념이 없다).

사고의 발달은 복잡한 관계성을 이해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이것은 사고의 질적인 변화로 보아야 할 것이며 그래서 단계의 개념이 생겨나는 것이고 정도나 양적인 변화는 단계라고 할 수 없다. Piaget는 발달하는 스키마 중의 하나가 원인적 관계성이라고 보고 아동의 연령에 따른 원인적 해석 발달을 고찰해나갔다. 이에 비하여 Stotland 등의 스키마 발달은 Piaget보다 더 구체적인 사상간의 관계성을 고찰하는 입장이다.

본 연구는 귀인발달이론이 인간에 대한 아동의 표현과 사상에 대한 설명에 관계된 대인지각의 차원에서, 인지발달의 구체적인 방법론에 해당하는 스키마 발달을 실험적으로 밝히기 위한 기초연구로서 이론적 특징을 고찰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예컨대, 아동의 대인지각에서 사회적 행동의 근간이 되는 상위스키마(HOS) 중의 하나가 '좋은 사람'(도덕성과 이타성이 있는 사람)을 예로 들 수 있다. 아동이 '좋은 사람'에 대한 귀인적 판단을 할 경우에, 연령증가에 따라 도덕적 이타적 행동에 대한 귀인 특성이 질적 양적으로 다르게 발달할 것이라는 실험적 가설을 설정할 수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주로 성인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던 귀인이론을 아동의 인지적 차원에까지 접근방법을 취하기 위해 인과관계적 스키마가 발달한다는 Piaget이론에서 유추하여 아동의 대인지각 과정의 수준에서 도덕성 귀인발달론을 구체적으로 고찰하고자 함이 목표이다.

## I. 물리적 원인론

Piaget의 저서 *The child's conception of physical causality*는 이 분야에 대한 지식적 공헌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이 저서에서 그는 관찰과 언어적 연구법을 광범하게 사용하였다. 예컨대, 그는 아동들에게 '왜'라는 질문을 사용하여 그들이 표현하는 원인의 주요 개념발달의 과정을 알기 위해 질문을 하고 추측을 하는 실험을 하였다. Piaget는 아동발달에 대한 원인적 설명에서 전조작기 아동들의 인과관계 개념에는 목적론, 인공론, 물활론 등이 있고, 유아는 동시적으로 가까이 일어나는 두 사건을 인과적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믿으며, 먼저 일어난 사건이 다른 사건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었다고 믿는다. 두 사건간에 기능적, 기계적인 직접적 관련이 없어도 시간적으로 근접해서 일어나거나 동시적으로 일어나면, 곧 이들 간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

서 이 시기의 유아의 인과관계인지는 매우 부조리하다. 그러나 유아는 정확한 인과관계를 파악할 수 없다고는 하나 사물간의 관계나 어떤 현상간의 관계를 원인과 그 원인에 의한 결과로서 인지하려고 하는 초보적인 도식은 가지고 하였다. 또 세가지 주요 원인적 발달과정을 규정하였다. 첫째, 아동은 외부세계에 자신의 특성을 확장시켜 나가고 있다. 연소아동은 물리적인 것과 심리적인 것을 혼돈하지만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동기화와 물리적 인과론을 구별하기 시작한다. 둘째, 아동초기의 원인설명은 인과관계의 즉각적이고 외적-일시적 관계를 의미하고 있고,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아동은 사상과 일시적 요소의 매개물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한다. 셋째, 발달은 가역적 연속성을 설정하는 일이다.

Piaget의 원인적 설명에 의해서 야기된 의문점은 논리적 조작들간의 상관성이다. 그것은 순수한 형식이 있고, 인과성을 이해하는 측면에서 아동의 연령과 이행적 추론능력획득 부합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의 연구는 원인적 이유를 다룬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이 개념과 관계된 언어적 발달을 다룬 것인지 분명치가 않다. 후자에 관계된 활용성은 질문 기술에 의해 좌우된다. 예컨대 Hood와 Bloom(1979)의 연구에서 2~3세 아동은 원인적 관계의 이해를 어느 정도 분석해내고 있다. 더욱이 최근의 연구들을 종합해 보면, 유아들이 지각한 인과관계를 언어로 표현해야 하거나 체계적인 논리적 추론을 거쳐서 대답을 해야하는 경우가 아니면 유아기에서도 인과지각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Shultz & Mendelson, 1975; Kuhn & Phelps, 1976; Kun, 1978; Bullock & Gelman, 1979; Sedlak & Kurtz, 1981). Piaget의 후기연구에서 조작성의 왕좌에 도전하는 연구들은 Shultz(1980)의 개념적 연구나 Bindra, Clarke와 Shultz(1980)의 실증적 연구를 제외하고는 Piaget를 평가하려는 시도의 연구는 거의 없었다. 그러나 후에 Piaget 연구에서는 원인적 설명의 내용을 배타시켰으며 그것의 형식이나 구조에 의해서 거의 언급되지 않았다.

한편 귀인연구에서의 원인론은 인간행동의 판단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서, 특정실험에서 사용되고 있는 자극이 물리적 원인의 예에 한정되고 있는 지에 대한 판단이 언제나 가능하지는 않는 것으로 되어있다. 먼저 원인적 원리로서 공변성, 연속성에 대한 아동의 인지작용을 검토하고, 그리고 인과관계에서 일시적 순위에 대한 의문은 아동의 원인적 이유설명에서 촉진과 억제원인 간의 구별을 최종적으로 해내기 전에 제기되는 점을 들어서 이 일시적 순위에 대한 교려도 아울러 하기로 한다.

공변원리는 Kelley(1971)의 귀인모델에 근거를 둔 것으로서 많은 관찰을 통해 이 원리의 타당성을 도출해냈고, 공변에 대한 기본적 검증을 아동의 원인적 판단에서 할 수 있음을 보여주므로써 그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었다. Siegler

와 **Liebert**(1974)는 5~9세 사이의 아동에게 실시한 물리적 실험에서 공변의 사실을 검증하였지만, 그 후에 재검증을 해본 결과, 공변성은 기억의 곤란성, 반응세트 혹은 노출시간의 단축과 같은 가공성에 기인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결정적인 변인은 아동의 시간적인 산만성이라고 하였다. 또 연장아동에 비해서 연소아동의 경우에는 그들의 판단을 공변성에 근거하지 않고 오히려 연속성을 기반으로 하여 조작하고 있는 것 같다. 사실 **Kelley**는 공변원리가 원인과 사상간의 일시적 관계성을 가정한다고 인정했지만 그와 그의 동료들은 자세한 성질을 고찰하지 않았다. 그래서 인접성이 공변성보다 더욱더 근본적이라는 제안을 하고 있는 점과 유사한 실험이 **Mendelson**과 **Shultz**(1976)에 의해서 이루어져 두가지 원리를 검증하였다. 공변원리 검증은 자극이 공간적으로 연속성이 있을 때 흔히 이루어진다. 공간적 연속성의 원리는 **Kelley**의 분석에서 특별히 고려되지 않더라도 원인적 판단에 비슷하게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한편 **Piaget**(1969, 1974)의 연구에서는 특히 연소아동에게 이 원리가 잘 적용된다는 것을 제안하고 있다.

다음의 일시적 순서 문제에 있어서는, 결과와 더불어 원인이 공동 발생한다는 가정은 성인에 의한 것이라 간주되어 있고 그 개념조차도 아동에 의한 것이 결코 아니다. 지당하게도 이 문제는 성인 피험자를 배제하는 귀인연구자들에 의한 고려가 아니고, 원인이론을 일시적 연속성이라는 특정사례로 보는 데까지 확장시켜 연구해 볼 수 있는 점에서만 나온 착상이다. **Piaget**에 의하면 연소아동은 원인순위(causal order)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고, 실험에서 “그 사람은 그의 팔을 부러뜨렸기 때문에 자전거에서 떨어졌다.”와 같은 문장을 이용하여 질문을 해보았다. **Corrigan**(1975)도 실증적으로 증명해 본 결과 단지 31% 아동만이 그런 문장이 틀렸다고 응답하고 있어 **Piaget**의 결론을 지지하고 있다. **Kuhn**과 **Phelps**(1976)의 실험에서도 5세 아동에게 그림으로 사상의 연속을 보여주며 문장을 이해케 하여도 올바른 원인적 문장을 택하지 못한다고 보고하였다(예, 의자가 젖었기 때문에 물이 쏟아졌다). 이 두개의 최근 연구에서와 같이 그러한 발견들은 언어적, 기억, 기술상의 결함에서 오는 것 같다. 또한 **Kelley**는 원인이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어떤 것은 그 효과를 유발하거나 촉진할 수가 있는 반면에 다른 것은 그 효과를 억제한다고 하였다. 억제조건에서의 공변원리적용은 간단하지 않을 뿐더러 성인의 경우에도 일반적으로 지연되는 학습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억제와 촉진원인에 대한 아동의 이해능력에 대한 의구심은 두개의 잘 고안된 지각적 실험에서 일소되었다. 즉 **Kassin**과 **Lowe**(1979)의 연구, 그리고 **Kassin**, **Lowe**와 **Gibbons**(1980)의 연구이다.

## II. 개인 및 대인간의 원인론 : 인과스키마\*

몇가지 이유 때문에 대부분의 사회적 원인론의 연구들은 원인적 스키마를 검증하였다. 원인적 스키마의 개념은 Kelley의 귀인이론 가운데 소개되었고, 그것은 “특정한 결과에 관련하여 두개 이상의 원인적 요소가 상호작용하는 방법에 대한 개념”의 의미이다. 스키마는 유기체 정보동화에 의한 추상적 인지 구조의 예이다. 그것들은 인지구조의 기본 단위들이며 인지구조보다 광범하고, 총괄적인 개념이다. Piaget는 지능을 감각운동스키마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유아기 동안에는 실제적인 인지구조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스키마는 특정한 인지내용의 표현과 그 표현상의 기능적 불변성 양쪽의 구조적 중재자이다. 또 스키마는 수입정보에 대한 보다 정확한 해석방향의 문제에서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변하고 발달한다고 보고있다. 또한 스키마의 주요한 측면은 유동성이다. 그것들은 다양한 인지내용에 적용될 수 있는 융통성있는 틀과 같은 것이다. 스키마의 주요한 형태는 유기체가 그것들을 반복적으로 적용하여 효과 있게 익히려고 한다는 점이다. 상호작용적 동화의 기제를 통하여 스키마는 내적으로 다르게 하고 각 스키마들간에 보다 견고하게 상호 통합을 이룬다고 하였다.

결과적으로, 스키마는 단순히 변량형들의 완전한 분석을 위해서 가정된 공변자료의 패턴이다. 그래서 공변원리 이해는 인과관계 관찰에서 경험으로부터 유도된 스키마적인 사고에 필요한 기본을 형성한다. 사실 Kelley는 Piaget에 의해 연구된 인지스키마의 하위집단과 원인스키마 특징의 발달을 확실히 연결 짓고 있다. 그는 심지어 요소간의 함축적인 이중방향적이라는 점에서 가역성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까지 하였다. 결과의 자료는 여러 원인의 출/몰을 예측하는데 이용될 수 있고 그 역도 가능한데 그 이유는 원인스키마 연구가 자체의 발견을 위해 발달적 설명을 명백하게 할 수 있는 상관성 때문이다.

Stotland와 Canon(1972)의 스키마발달론은 Piaget의 스키마론보다 더 구체적으로 사상간의 관계성을 고찰하는 입장으로서 그 개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스키마의 형성은 언어에 의해서 촉진되는데 그 이유는 개인이 개념적차원과 또 그 위치(position)에 명칭을 부여하게 되면 경험된 연상위치의 실례를 기억하기 쉽기 때문이다. 좀더 구체적으로 표현해 본다면 첫째, 하나의 스키마는 개념화된 차원상의 위치와 스키마들간의 관계성을 구성하고 있다. 둘째,

\* Piaget는 많은 학자들이 Scheme의 개념을 Schema로 번역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Schema가 인지의 표상적인 측면에서 고려된 수동적 양식을 취하고 있는데 비해서 Scheme은 조작적 측면에서 고려된 활동적인 조직원리라고 하였다(Piaget & Inhelder, 1969).

사물은 위치와 차원간의 구체화된 집합체로서 밝혀질 수 있기 때문에 스키마는 사물의 등급을 규명할 수 있다. 세째, 스키마는 각 사상이 위치와 차원으로 구분되어질 수 있는 사상의 등급도 규명할 수 있다.

스키마는 차원의 변화들 사이를 연결하는 접합체와는 다르다. 즉 스키마는 접합체가 하듯이 지각된 세계를 즉각 묶어놓은 일을 하지 않는다. 이는 스키마 자체가 구성하고 있는 개념화된 차원이 어떤 주어진 사물이나 상황에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래서 스키마는 개방결과의 성향이 있고, 스키마들이 발달되었거나 이용된 원래의 한계를 넘어서는 상황에 적용될 수 있다. 또한 Stotland와 Canon은 사상간의 관계성 설명에서 HOS(higher order schema)와 LOS(lower order schemas)를 제안하고 하위스키마가 모이면 고위스키마가 형성된다고 하였다. 즉 개인은 차원의 위치보다는 여러 스키마자체를 기억하게 되고 그리하여 기억된 스키마가운데서 사회성에 근거한 상위스키마를 발달시킨다고 하였다.

이러한 스키마의 기능에 대한 인지적, 동기적, 사회적 측면을 다음과 같이 구분해 볼 수 있다(Rumehart and Ortony, 1977; Stotland and Canon, 1972). 첫째, 사람은 하나의 주어진 시간에 지각할 수 있거나 영상화된 세계의 한정된 수의 차원에 참여할 수 있고, 전체적 상황에서 친숙한 성질이 있는 경우에 특별히 관심이 변화쪽으로 기울게 될 것이다. 또 어떤 주어진 차원에서 개인이 지각했던 실례의 기억을 통하여, 그는 다소 구체적인 실재의 독립성이 있는 그러한 차원의 개념화로 되거나 추상화된 견해를 획득하고, 두개 이상의 관련 차원들에서 특정 위치들간의 연상이 일어나고 있는 반복된 경험을 얻은 후에, 그리고 그 경험에 대한 기억의 동시 발생이 있는 후에 스키마는 발달되어 지속적 HOS발달의 기본이 될 수 있다. 둘째, 아동은 정보처리 능력을 필요로 하는 여러 사상에 주의집중을 하게되는 상황에 처하게 되면 불안을 경험하게 되고 그러한 불안을 피하기 위해서 아동은 새로운 차원과 스키마의 발달에 동기화되어진다. 한편 아동은 새로운 것을 배우고 새로운 스키마를 생성시키려고 동기화되는데, 그 이유는 그러한 지식이 그 자체의 목표 달성 능력을 증강시키기 때문이다. 또 아동은 친숙한 것에 대한 스키마를 보다 많이 갖게 되고 그래서 그의 목적을 달성하게되고, 친숙한 상황에서는 과중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피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높게 친숙한 것으로 평가하게 되고 친숙하지 않은 것은 친숙으로 변형시키게 된다. 세째, 아동의 경우에 타인에 대한 스키마발달이 높게 잘 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그 타인들을 잘 변하고 있고 환경에서 실재의 주의집중을 잘 하고 있으므로 그들은 목적달성에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또 여러 스키마들 중에서 타인과의 의사소통은 흔히 정보의 유용한 원천이기도 하고, 타인의 기대감을 충족시키는 것도 목적달

성에 도움이 된다.

인지적 실험연구에서의 스키마발달에 대한 발전적인 또 다른 이론은 Kelley (1972b) 연구에서 주장된 바 있는데 그는 가장 간단한 원인현상은 두개의 원인과 하나의 결과 관계에서 출 혹은 몰 하는 차이를 귀인자가 구별하는 상황적 이론이다. 단지 한 원인의 출은 그 결과에 충분하거나(MSC스키마) 혹은 양자의 원인이 모두 필요하게 된다(MNC스키마). 많은 발달적 측면 연구는 내재적 동기화 연구(Deci, 1975; Lepper, Green & Nisbett, 1973)에 의해서 주도되었기 때문에 전자의 스키마에 초점을 맞춰왔다. 또 Lepper 등(1973), Shultz 등(1975), Smith(1975) 등의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서로 대조되는 실험결과를 얻어내 혼란이 되고있다. 이들 연구들은 MSC스키마가 구체적 조작획득이나, 형식적 조작획득이나에 대해서 의견이 일치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연구결과는 내재적 동기연구에서 비교될 때 연소아동은 이 스키마를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연구들은 두가지 형태로 취해지고 있다. 그 하나는 연소아동이 어떤 조건하에서는 MSC스키마를 사용할 수 있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을 보이려는 시도가 엿보인다. 다른 하나는 전조작기 피험자는 부가적 규칙을 사용하는 경우에 질적으로 다른 형태의 이유를 억제한다는 것, 즉 외재적인 원인의 출현은 선택된 대상에 대해서 내재적 친호성을 증가시킨다는 것이다.

### III. 도덕적 판단의 귀인적 분석

도덕적 판단의 분석에서 이론의 초점은 사람이 도덕적 의무를 어떻게 인식하게되며, 그들 자신과 타인의 도덕적 판단에 어떻게 임하게 되는가에 있다. 더 나아가서 자신의 행동을 이끄는 도덕적 판단을 어떻게 사용하게 되는가 하는 문제점이다.

Heider(1958)는 도덕적 판단에서 사회화와 학습의 역할이 부정되지 않는 한 그러한 판단에 귀인과정이 내포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도덕성에 관한 Heider의 이론은 의무(ought) 개념이 중심이 되어 있다. 의무는 특정상황에 적합한 행동을 지표하는 일반적 표준으로서 두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째, 서로 다른 사람들이 어떤 상황에서 같은 의무요구를 지각해야한다. 둘째, 의무요구는 모든 상황에서 자신들을 명백히 해야한다. 이러한 특징들은 어떤 외적 혹은 객관적 귀인에 있어서 주요 기준을 나타내고 있다(Heider, 1958; Kelley, 1971). 외적귀인 특징을 지니고 있는 의무는 그들이 어떻게 지각하느냐에 대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귀인이론에서 도덕성을 행동에 대한 책임으로 보는데까지 확장된다는 것은



역으로 외적요인이 행동의 결정으로 지각되는 정도에 관련되고 있다. 이 명제는 도덕적 평가에 관련성이 있음을 암시하고 있어 도덕적으로 좋은 행동은 일반적인 의무표준에 의해서 요구되는 외적 결정으로 지각되는 경우가 많다. 신용이나 비난의 문제에서도, 비난은 흔히 의무표준을 신봉할 경우에 그 실패에 대해 귀인되고 있다. 또 사람은 요구되는 임무를 넘어서서 일을 했을 때는 원칙적으로 도덕적으로 책임있는 행동을 했다고 신용을 얻는다. 이것은 자신의 자기 관심에 반대하는 경향이 강한 것으로서 그것에 반대하는 외적 환경의 영향으로 도덕적으로 행동할 때에 일어난다. 그래서 그 사람의 행동결정으로 보여져서 신임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Piaget의 경우에는 아동의 도덕적 사고에 관한 9개의 차원 연구에서 타율성과 자율성 도덕이라는 이름을 붙인 두개의 기본단계를 구분하였다. 첫번째 것은 성인의 도덕적 강제성과 유아의 자기중심성에 관한 이론이었다. 그것은 도덕적 실재론(realism)과 통하는 것으로서, 행동의 규칙을 어기려는 악의나 규칙과 갈등을 일으키는 선의와는 관계없이 규칙과의 물질적인 일치 즉, 행동적 결과의 물질적인 손상의 크기나 양에 의해서만 판단되어진다. 또 거짓말에 있어서는 그것을 속이려 하는 의도보다는 객관적인 사실과 물질적으로 얼마나 차이가 있는가를 더욱 중요하게 보는 것이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Piaget가 규준을 이용하여 도덕적 실재론이 책임성의 객관적인 개념을 유도하게 하였다는 점이다. 후에 점차 아동이 동료집단 속에서 상호 존경과 동질성의 상관성을 경험하게 되어 자율적인 도덕적 사고가 나타난다. 따라서 주관적인 책임성이나 의도에 근거한 판단이 사고의 특징으로 나타나기 시작한다.

이러한 Piaget의 기본이론에 대하여 Heider는 책임성을 부여하는 데는 여러 가지 매우 다른 방식이 있다고 제안하였다. 그는 Piaget 이론에 따라 귀인은 비교적 초보적이고 분별되지 않은 귀인에서부터 상황의 여러 요인을 설명하는 궤변적 귀인이 있다고 제안하였다. 그는 아직도 관찰자가 원인선택을 하는데 있어서 책임성 해석에 대한 각각의 뚜렷한 지침을 준비해 놓지 못했다. 그러나 그는 유아가 보다 성숙된 개인이 의도에 비중을 두고 발달하는 동안 초보적인 귀인을 하거나 확인 불가능한 의도를 보이려는 발달적 단계가 있다는 Piaget의 관찰이론에 동의하고 있다. 그는 책임성의 용어를 해석하는데에는 5가지 수준에서의 방식이 있다고 제안하였다(제 1수준-연상, 제 2수준-임무위임, 제 3수준-예측가능성, 제 4수준-의도성, 제 5수준-정당화).

책임성 개념변화에 초점을 둔 귀인연구는 대단한 역사적인 일이다. Heider는 규준이나 수준들을 사람에 대한 귀인은 감소하고 환경에 대한 귀인이 증가하는 연속적 단계로 보았다. 이 설명으로는 그가 인지발달 감각에서 그수준을 발달적 단계에 나타내려는 의도인지 분명치가 않았다. 원인론, 그리고 의도의

규준과 주관적, 객관적 책임성에 대한 Piaget의 개념간의 유사성이 지적되고, 그는 수준들이 연령에 관계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최근 저서에서 보아도 그의 의도는 이것이 아니었다. 그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귀인이론에서 첫번째 발달을 야기시킨 수준이다. 그가 의도하는 것이 무엇이든 간에, Heider 모델은 책임성에 대한 Piaget 이론의 몇가지를 수정하고 있다. 발달단계에 관한 의문점과 관련하여 연령적 척도분석 분포에서 연령에 관련된 패턴이 분명하게 나타나지 않음이 밝혀졌다. 그러나 성인의 대다수 분포는 다른 어떤 연령집단보다 예측 가능성과 정당화의 규준을 사용할 수 있었지만 반면에 연소아동에 있어서는 수준간의 차이가 없는 정도는 발견되었다. 그래서 Heider 모델은 연령 관련성이 분명치 않지만 단순차원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므로 현대의 연구는 Heider 모델의 발달적 해석이 최초로 고려된 바와 같이 적합치 못하다는 것을 제안하고 있다. 그의 이론에서 발달적 차이는 그렇게 많이 야기되지 않는 이유는 서로 다른 연령집단에서 다른 규준을 사용해야 한다는 이유가 아니라 정도를 달리하는 규준을 사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 IV. 결론 : 도덕성 귀인발달에 대한 가설 설정

지금까지 논의된 도덕성을 중심으로 한 인지발달이론에 대한 핵심은 인지적 단계로서 그 특징들을 요약해보면, 첫째, 단계는 아동의 사고모형이나 연령에 따른 동일문제해결을 할 수 있는 뚜렷한 질적인 차이를 함축하고 있다. 둘째, 사고의 다른 양식은 문화적 요인이 작용하는 동안 개인적 발달에서 불변적 연속, 순서, 계승의 형태로 된다. 셋째, 이런 차이와 사고의 연속적 양식은 구조화된 전체로 이루어진다. 과제에서 어떤 단계 - 반응은 과제나 유사과제와 친숙해진 것과 지식에 의해서 결정된 특정반응 그것을 표현하는 것은 아니다. 넷째, 인지적 단계는 위계적 통합이고, 단계는 일반적 기능을 충족시키는 점차 분화되고 통합된 구조의 순서로 형식화된다. 이러한 단계의 특징에 대해서 도덕성 발달단계를 중심으로한 인지발달이론을 가설적으로 종합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본발달에는 연상주의적 학습의 매개변수에 의해 규명되거나 설명되어질 수 없고, 내적 관계성의 조직적 전체나 체계의 매개변수에 의해서 설명되어야 하는 인지적 구조의 기본변형이 내포되어 있다. 둘째, 인지구조의 발달은 학습의 직접적인 결과나 성숙의 직접적 결과이기보다는 오히려 유기체의 구조와 환경의 구조간의 상호작용과정의 결과로 보아야 한다. 셋째, 인지구조는 항상 행동의 구조(schemata)들이다. 인지적 활동은 감각운동에서부터 언어적 명제 형식에 대한 상징적인 것에까지 이르지만 이런 형식의 조직화는 항상 사물에 의한 행동의 조직화를 의미한다. 넷째, 인지구조의 발달방향은 지

각된 사물(혹은 상황)에 의한 유기체의 행동과 유기체에 대한 지각된 사물의 행동간의 보다 강한 균형이나 상호적인 유기체-환경 상호작용내에서의 보다 큰 평형으로 가는 것이다.

도덕성 귀인 발달 측면에서 보면 Piaget의 인지 발달 단계나 Kohlberg의 도덕 발달 단계가 설정되어 있듯이 귀인의 질과 양도 그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을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략으로서는 도덕성과 이타성이 통합되어 있는 ‘좋은 사람’에 대한 귀인 스키마 발달을 고찰하는 것이 첩경이리라고 본다.

사회적 인지 발달론에서 귀인 과정은 내용(content)과 과정(process)이 동시에 작용한다. 내용은 개념 형성에 관계되고, 과정은 추론적 판단 과정에 해당된다. 따라서 도덕성이 발달하려면 이미 가지고 있는 도덕성을 바탕으로 하여 귀인 작용을 하므로써 도덕적 행동으로 이끌게 된다. 환언하면, 도덕적 행동을 보고 그 사람의 행동을 그 사람의 도덕성에 귀인할 수 있고 그렇게 유추하려면 최소한의 틀이 있어야 가능하다. 이 틀이 바로 도덕성에 대한 스키마라고 할 수 있다.

Piaget는 원인적 사고에서 원인적 스키마를 주로 물리적 원인으로 다루었고 대인지각 내지는 심리적 지각의 정도는 다루지 않았다. 또한 Kohlberg도 도덕성 발달 단계를 주장한 실험에서 극단 상황의 도덕적 갈등을 피험자에게 제시한 것이지 일상 생활을 주제로 한 스토리가 아닌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이러한 도덕성, 이타성의 발달 요소는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다음과 같이 규범적으로 목록을 설정할 수가 있다. 도덕성 목록에는 정직, 질서, 책임, 예의, 4가지가 있고, 이타성 목록에는 원조, 자선, 구조, 분배 4가지가 있다(한국 행동과학연구소, 1982). 본 연구자는 실험적 연구를 위해 예비 실험(1984)을 해본 결과, 제작된 8개의 스토리 중에서 도덕성의 예의와 이타성의 자선에 관한 자극 스토리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예 의—

영숙이는 친구들과 집밖에서 놀고 있었읍니다. 그런데 낯선 할머니 한 분이 다와서 이 동네에 사는 순옥이 집이 어디냐고 물었읍니다.

아이들은 순옥이 언니집을 다 알고 있었지만 그 할머니의 물음에 대답도 하지 않고 그냥 놀고 있었읍니다. 그러나 영숙이는 놀다 말고 그 할머니께 달려가서 “제가 순옥이 언니집에 모셔다 드리겠읍니다.”하고 친절하게 순옥이 언니집까지 모셔다 드렸읍니다. 이웃 사람들은 영숙이가 착한 아이라고 칭찬해 주었읍니다.

#### (자선-사회적 압력)

현종이는 오늘이 일요일이라서 어머니, 아버지와 함께 시내에 나가서 물건도 사고, 맛있는 것도 사먹고 다녔읍니다. 그런데 길 한모퉁이에 쭈그리고 앉아 있는 불쌍한 거지를 보았읍니다. 어머니, 아버지는 거지에게 돈을 주었읍니다. 현종

이는 그냥 지나가려고 하니까, 아버지께서 “너는 불쌍한 사람에게 돈을 안주니? 너 아까 받은 돈 있잖니?”

현종이는 조립장난감을 사려고 아버지께 받은 돈 200원 중에서 100원을 거지에게 주었습니다.

또한 이타성 발달에 있어서는 일상생활 중에 흔히 일어나는 상황 가운데서 사회적 압력과 반대급부기대의 측면도 동시에 고려하고자 한다. 따라서 도덕성 스토리에 대한 귀인적 질문은 “왜 착한 아이라고 칭찬했을까요?”(도덕성에 대한 귀인), “왜 그러한 행동을 했을까요?”(도덕적 행동에 대한 귀인)로 하고, 이타성 스토리에 대한 귀인적 질문도 “왜 그 아이가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이타성에 대한 귀인) “그 아이를 친구로 사귀고 싶습니까?”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이타적 행동에 대한 귀인)로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질문에 대한 응답 즉 귀인적 특성은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스키마가 구체적인 성질에서 추상적으로, 특징적인 성질에서 일반적으로, 자기중심적인 성질에서 이타적으로 질적인 변화를 가정할 수가 있을 것이다.

## 참 고 문 헌

- 李星珍外, 韓國兒童의 道德性 發達 實態와 道德教育 方向定立을 위한 研究, 韓國行動科學研究所, 1982.
- Antaki, C., & Brewin, C. *Attributions and psychological change*, New York: Academic Press, 1982.
- Baldwin, A. L., *Theories of child development* (2nd ed.). New York: John Wiley & Sons, 1980.
- Berzonsky, M., The role of familiarity in children's explanations of physical causality. *Child Development*, 1971, 42, 705-715.
- Bindra, D., Clarke, K. and Shultz, T.R. Understanding predictive relations of necessity and sufficiency in formally equivalent 'causal' and 'logical' problems. *Journal of Experimental Psychology*: 1980, 109, 422-443.
- Bridgeman, D. L. *The Nature of prosocial development*. New York: Academic Press, 1983.
- Bryant, P. E. Logical inferences and development. In B. A. Geber(ed.), *Piaget and knowing: Studies in genetic epistemology*, 1979, pp. 53-65. London: Routledge.
- Bullock, M. and Gelman, R. Preschool children's assumptions about cause and effect: Temporal ordering. *Child Development*, 1979, 50, 89-96.
- Corrigan, R. A. Scalogram analysis of the development of the use and comprehension of

- 'because' in children. *Child Development*, 1975, **46**, 195-201.
- Costanzo, P. R., Grumet, J. F. and Brehm, S. S. The effects of choice and source of constraint on children's attributions of preference.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1974, **10**, 352-364.
- Darley, M. J., Klosson, E. D. and Zanna, M. P. Intentions and their contexts in the moral judgements of children and adults. *Child Development*, 1978, **49**, 66-74.
- Di Vitto, B. and McArthur, L. Z. Developmental differences in the use of distinctiveness, consensus, and consistency information for making causal attributions. *Developmental Psychology*, 1978, **14**, 474-482.
- Erwin, J. and Kuhn, D. Development of children's understanding of the multiple determination underlying human behaviour. *Developmental Psychology*, 1979, **5**, 352-353.
- Fein, D. A. Judgements of causality to physical and social picture sequences. *Developmental Psychology*, 1973, **8**, 147.
- Fincham, F. D. and Jaspars, J. Attribution of responsibility to the self and other in children and adult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979, **37**, 1589-1602.
- Flavell, J. H. & Ross, L. *Social cognitive development*, New York: Cambridge Univ. 1983.
- Harvey, J. H., and Icks, W. J. and Kidd, R. F. (eds.), *New directions in attribution research* Vol. I, II, N.J.: Erlbaum, 1976, 1978.
- Imamoglu, E. O. Children's awareness and usage of intention cues. *Child Development*, 1975, **46**, 39-45.
- Jaspars, J., Fincham, F. D. & Hewstone, M., *Attribution theory and research: conceptual, Developmental and Social Dimensions*, New York; Academic Press, 1983.
- Jones, E. E., Kanouse, D. E., Kelley, H. H., Nisbett, R. E., Valins, S. and Weiner, B. *Attribution: Perceiving the causes of behavior*. Morristown, N.J.: General Learning Press. 1972.
- Karniol, R. Children's use of intention cues in evaluating behavior. *Psychological Bulletin*, 1978, **85**, 76-85.
- Kassin, S. M. and Lowe, C. A. On the development of the augmentation Principle: A perceptual approach. *Child Development*, 1979, **50**, 728-734.
- Kassin, S. M., Lowe, C. A. and Gibbons, F. X. Children's use of the discounting principle: A perceptual approach.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980, **39**, 719-728.
- Keasey, C. B. Young children's attributions of intentionality to themselves and others. *Child Development*, 1977b, **48**, 261-264.
- Kelley, H. H. and Michela, J. L. Attribution theory and research. In M. R. Rosenzweig and L. M. Porter(eds.), *Annual Review of Psychology*, 1980, **31**, 457-501. Palo Alto: Annual Review Inc.
- Kuhn, D. and Phelps, H. The development of children's comprehension of causal direc-

- tion. *Child Development*, 1976, **47**, 248-251.
- Kun, A. Development of the magnitude-covariation and compensation schemata in ability and effort attributions of performance. *Child Development*, 1977, **48**, 862-873.
- Leahy, R. L. Developmental trends in qualified inferences and descriptions of self and other. *Developmental Psychology*, 1976, **12**, 546-547.
- Lepper, M. R., Greene, D. and Nisbett, R. E. Undermining children's intrinsic interest with extrinsic reward: A test of the 'over justification' hypothesi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973, **28**, 129-137.
- Macaulay, J. & Berkowitz, L. *Altruism and helping behavior*, New York: Academic Press, 1970.
- Mendelson, R. and Shultz, T. R. Covariation and temporal contiguity as principles of causal inference in young children. *Journal of Experimental Child Psychology*, 1976, **22**, 408-412.
- Michotte, A. *The perception of causality*. 1963. New York: Basic Books.
- Monson, T. C. and Snyder, M. Actors, observers, and the attribution process: Toward a reconceptualization.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1977, **13**, 89-111.
- Piaget, J. and Inhelder, B. *The psychology of the child*. 1969, New York: Basic Books.
- Reeder, G. D. and Brewer, M. B. A Schematic model of disposition attribution in interpersonal perception. *Psychological Review* 1979. **86**, 61-79.
- Ross, M. & DiTecco, D. An attributional analysis of moral judgments, *Journal of Social Issues*, 1975, **31**, 91-109.
- Shaver, K. G. *Principles of Social Psychology* (2nd ed.), Massachusetts: Winthrop, 1981.
- Shaver, K. G. *An introduction to attribution processes*. Cambridge: Mass: Winthrop, 1975.
- Shaw, M. E. and Sulzer, J. L. An empirical test of Heider's levels in the attribution of responsibility. *Journal of abnormal and Social Psychology*. 1964. **69**. 39-46.
- Shultz, T. R. and Mendelson, R. The use of covariation as a principle of causal analysis. *Child Development*. 1975. **46**, 394-399.
- Shultz, T. R. and Ravinsky, R. B. Similarity as a principle of causal inference. *Child Development* 1977, **48**, 1552-1558.
- Siegler, R. S. and Liebert, R. M. Effects of contiguity, regularity, and age on children's causal inferences. *Developmental Psychology*. 1974. **10**, 574-579.
- Smith, M. C. Children's use of the multiple sufficient cause schema in social percep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975, **32**, 737-747.
- Weiner, B. and Kun, A. The development of causal attributions and the growth of achievement and social motivation. In S. Feldman and D. Bush(eds.), *Cognitive development and social development*. Hillsdale, N.J.: Erlbaum, 1980.

## ABSTRACTS

### **An Attributional Analysis of Morality Development**

**Kim, Dong-Gi**

*Kangnam Social Welfare College*

The paper is intended to review the traditional cognitive model of morality development from attributional perspective. The piagetian and/or Kohlberg's model has placed its principal focus on describing schematic change in moral judgement from the perspective of developmental stages.

However, the model has relatively neglected the dynamic aspect of the moral judgement processes on micro-analytic level. Any moral judgement involves interpretational processes of the object behavior to be judged. It also can be assumed that the interpretation of behavior in moral judgement situation inevitably presupposes attributional processes. It is further reasoned that morality schema would develop in parallel with attributional development.

This line of reasoning was substantiated in the paper by analyzing the traditional cognitive model from attributional perspective and further by conceptually relating Kohlberg's model to developmental dimension of attribution theory. Finally, an experimental instruments for measuring attributional schema in relation to moral judgement situations were introduced.